

지역 소식통

‘친환경 농산물 사주기’ 정읍시청 공무원 동참

정읍시 공무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급식 업체와 식재료 납품 농가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시는 유치원과 학교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길이 막힌 업체와 농업인을 위한 ‘친환경 농산물 사주기 운동’을 전개했다.

시에 따르면 매일 출하해야 하는 상추와 시금치, 딸기 등의 업체류나 과일은 저장 기간이 짧아 제때 판매를 하지 못하면 폐기할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 있다.

이에 정읍시청 공무원 300여 명이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 착한 소비에 나섰다.

공무원들은 지난 20일 지역 내 농가들이 직접 재배한 열무와 딸기 등 총 26개 품목의 친환경 농산물(약 560만원 상당)을 구매했다.

또, 공무원들은 친환경 농산물 사주기 운동을 지속적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 단풍미인소핑물 신규 입점 업체 모집

정읍시 농업기술센터가 ‘단풍미인소핑물’에 신규 입점할 업체를 모집한다.

‘단풍미인소핑물’은 시 농업기술센터가 직영하는 온라인 농특산물 소핑몰이다.

입점 신청은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정읍 내에서 생산·가공된 상품에 대한 합법적 통신판매 자격을 갖춘 개인 또는 단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내달 24일까지 입점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지참해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농기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063-539-6263)로 전화하거나, 농업기술센터 또는 단풍미인소핑물 홈페이지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농기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소비자의 인터넷 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해 희망업체 추가 입점 모집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가축분뇨 조사특위 마무리

각종 의혹에도 활동 한계... 수사권 등 강제력 없어 자료도 부실... 보조금 회수단계 이달 말까지 활동

정읍시의회(의장 최나삼)는 2018년도에 실시한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축산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어 대책 모색과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할 목적으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2019.1.18.)했다. 특별위원회는 정상철 의원을 위원장으로 조상중 부위원장, 김재오, 이복형, 이상길, 김은주 의원으로 조사활동 기간은 2019년 2월 22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이다. 가축분뇨 조사특위는 그간 10회에 걸친 회의와 7차례의 간담회 개최로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의 지침(사업신청단계, 사업자선정단계, 세부계획수립, 사업시행단계, 자금배정단계, 이행단계 등) 준수 ▲법 및 기본규정의 준수(국가재정법, 보조금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 여부 등을 조사하여 관련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

한 출석과 청문을 실시하여 보조금 집행 및 관리의 적정성, 보조금 사업의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활동하였다.

주요 조사결과를 보면 ▲사업자선정 단계에서 인허가 등 사전행정절차 미이행한 사업대상자 부당선정 ▲세부계획수립에서 사업계획 변경의 시·도지사 타당성 검토 절차 무시 ▲사업시행단계에서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공개경쟁입찰을 무시하고 특정공무원 업무담당 시기에 편중된 보조사업자의 수의계약 ▲자금배정단계에서 사업목적 달성이 아닌 사업에 대한 정산 부담처리가 있으며 ▲기타 별도계정설계 위반, 전결규정 위반, 회계연도독립의 원칙 위반, 의제적인 집행잔액 사용 및 보조사업 편중지원 의혹과 보조금집행시 지원대상자의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단체와 가족관계에 있는 업체와 계약의 위법성 등 자가시공 의혹이다. 또한, ▲2012년

가축분뇨해양투기 금지, 환경규제 등에 따라 자원화 시설확충, 고품질 퇴·액비의 생산·유통·관리체계를 구축할 목적으로 시행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관련 보조사업 목적의 미달성 의혹이다.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가축분뇨 조사특위 활동에는 한계가 있었다. 먼저, 입법부인 의회에서 구성된 조사특위는 검찰이나 경찰과 달리 수사권·구속권 등 강제력이 없었다. 그 결과 의혹을 확인해 줄 결정적 단서를 제공할 핵심증인의 증언이 절실히 필요했음에도, 결정권자인 핵심증인의 불출석으로 인한 진실규명을 할 수 없었으며, 시간이 오래된 민간자본사업으로 행정적 문서의 보존기한이 지나 보존 자료 또한 부실했다. 행정에서는 보조금 지출관련 서류 보존기한은 5년에 불과하고 직원들은 1~3년 단위로 부서 이동이 있고 컴퓨터의 내구연한도 5년에 불과하였다.

가축분뇨 조사특위(위원장 정상철)는 조사결과 보고서의 채택 후 이를 수사권·구속권이 담보된 기관에 전달하여 보조금을 회수하는 단계를 끝으로 활동을 마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는 23일 명품 격포권역 조성 위한 현장행정을 추진했다.

권익현 부안군수 ‘격포권역 사업’ 현장 행정

관광수요 창출 발상전환 주문

권익현 부안군수는 23일 명품 격포권역 조성을 위한 현장행정을 추진했다. 이날 권익현 군수는 격포 닭이봉전망대와 격포항, 공항마리나항 등 주요 사업현장을 찾아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권익현 군수는 격포 닭이봉전망대 개보수 사업현장을 찾아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 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공단과 협의해 신축을 포함한 타워개발 등 발상의 전환을 주문했다.

이어 격포항 권역단위 거점개발 사업현장에서는 향후 크루즈항 입항과 닭이봉전망대, 지질공원 등 관광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장기적인 비전과 함께 마을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지속 가능한 자립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둘 것으로 강조했다.

또 격포 아름다운 어항 조성사업 현장을 찾아 크루즈 입항 준비와 연계될 수 있도록 광장정비, 각종 표지판 및 불법현수막 정비 등을 통한 경관개선을 추진토록 했다.

특히 권익현 군수는 격포권역은 크루즈 입항과 함께 공항마리나항과 연계한 종합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해야 한다고 천명하고 은 행정력을 집중할 것임을 시사했다.

권익현 군수는 “격포항·공항마리나항과 연계한 크루즈 입항을 위해 군정역량을 집중해 글로벌 휴양관광도시 부안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투자자가 무한정 우리를 기다려 주는 것도 아니고 기회가 매년 오는 것도 아닌 만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부서간 협업 등 적극행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 농식품가공센터 풀가동

장비 사용료 감면 등 주효...고창지역 농식품기업 매출 증대 기여

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의 농식품가공센터가 연초부터 풀가동 되면서 고창지역 농식품기업의 매출 증대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3일 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이사장 유기상 고창군수)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8건의(새싹보리 분말 2건, 딸기 2건, 새싹귀리분말 2건, 아로니아 1건, 마분말 1건 이상 8건) 동결건조 가공 실적을 보이고 있다.

또 오는 5월까지 12건(천년초분말 외

11건)의 예약이 잡혀 있어 농식품가공센터의 최첨단 장비들이 쉬 없이 가동되고 있다. 이는 연구소가 장비 사용료 감면과 시제품 생산 서비스 등 관내 농식품 기업과 농가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노력해 온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연구소는 관내 영세한 농식품 기업 육성을 위해 동결건조기(가동시간 90시간/1회) 장비사용료 감면(110만원/400kg)과 동결건조기 시제품 생

산을 위한 소량(5kg) 생산 무료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또 관내 농업인이 농산물을 이용해 제품 연구개발 및 가공센터(농식품가공센터, 소스생산시설)운영을 통한 제품생산, 홍보 및 유통을 지원하는 One-stop 시스템 운영으로 농식품 기업 육성에 노력하고 있다.

연구소는 지난해 농식품가공센터 동결건조기(30건) 생산 등 42개소 77건 생산 실적으로 관내 영세 식품 기업의 경영성과 증대를 가져왔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태양광 스마트 벤치서 쉬다 가세요”

문화의전당 분수대 등 5곳 설치

고창군(군수 유기상)이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읍성 관리사무소 앞, 문화의전당 분수대 등에 태양광 스마트 벤치(사진)를 설치했다고 23일 밝혔다. 태양광 스마트 벤치는 벤치에 태양광 패널을 부착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태양열 에너지를 모아 활용하는 신재생에너지 미니 발전소인 셈이다. 고창군은 최근 고창읍성, 문화의전당

분수대, 군립도서관 앞, 고창실내체육관, 고창 월곡공 등에 스마트 벤치를 시범 설치했다.

설치된 스마트 벤치는 사람이 앉는 좌판에 태양광 발전 블록이 설치되어 있고 전기를 만들어낸다. 생산된 전기는 모바일 기기 충전, 경관 조명에 사용된다. 가로등도 함께 설치돼 안전 확보와 범죄예방의 효과도 있다.

고창군은 일조시간(하루 3.5시간 이상)이 확보되는 곳을 선정해 공원, 등



산로 입구 등 주민 야외 휴식공간에 다양한 스마트 벤치를 설치할 계획이다. 고창군은 주민들의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히 사후 관리도 펼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유진섭 정읍시장 ‘천사 히어로즈’ 공사현장 점검

진행상황·안전사항 중점 확인

유진섭 정읍시장은 지난 20일 내장산 문화광장 일원에 조성 중인 복합 놀이시설 ‘천사 히어로즈’ 신축 현장 방문을 점검했다.

유 시장은 시설 내·외부를 꼼꼼하게 둘러보며, 어린이들과 시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용자 중심의 시설로 공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건설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고 사업계획에 따른 견실한 시공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건설 업체 측은 이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시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천사 히어로즈(내장동 1,004번지)는 더 높은 삶의 질을 중시하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즐겁고 자유로운 놀이문화를 보급하는 것이 목적이다. 총사업비 약 49억 원을 투입해 전복 최대 규모(연면적 2천962㎡)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오는 4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곳에서는 타워클라이밍, 스크린 야구장, 트램펄린 등 20여 종류, 50여 개의 놀이시설과 스포츠시설을 즐길 수 있다.

유진섭 시장은 “천사 히어로즈는 내장산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날에 상관없이 사계절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놀이 시설”이라며 “내장산문화광장의 관광 거점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